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 @kca.go.kr
 농촌진흥청		

이 자료는 **8월 31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30일(화) 12시]

배포일	202년 8월 30일(화) (총 14쪽)	담당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김인숙 팀 장 (043-880-5421)
			손형수 대 리 (043-880-542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이희재 과 장 (044-200-4418)
김지원 조사관 (044-200-4425)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 팀 장 (063-238-4171)			
이민지 농업연구사 (063-238-4179)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로 나타나

- 뇌진탕 사례가 가장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둔부 골절이 늘어-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은 고령자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최근 4년간('18년~'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23,561건이다.
 -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14,778건)가 낙상사고로,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고령자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11,055건)했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 낙상사고로 ‘머리 및 뇌(뇌막)’를 다치는 경우(3,014건)가 가장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손목 골절보다 둔부 골절이 늘어났다.
 - 한편,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사다리’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 농진청은 낙상사고 사례와 예방방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이와 더불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앞으로도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1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

가.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

□ 최근 4년간('18년~'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총 23,561건으로, 이 중 62.7%(14,778건)가 낙상사고로 확인됐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연도별 고령자 낙상사고 접수현황]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안전사고	6,133	6,218	5,862	5,348	23,561
낙상사고	3,828	3,755	3,721	3,474	14,778
낙상사고 비율*	62.4	60.4	63.4	65.0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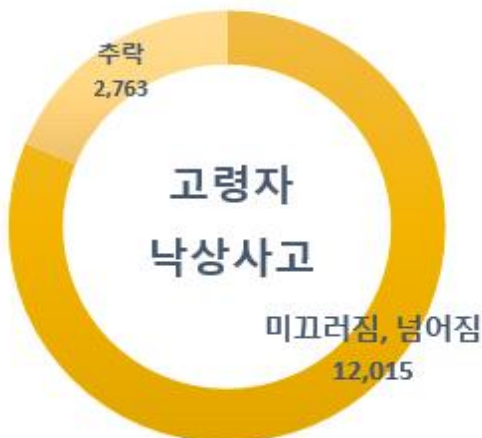
* 고령자 낙상사고/고령자 안전사고 × 100

○ 낙상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인데, 고령자 낙상사고의 경우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의 비율이 81.3%(12,015건)로 나타났다.

□ 고령자 낙상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5세~79세'의 낙상사고가 3,24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80세~84세' 3,223건, '70세~74세' 2,703건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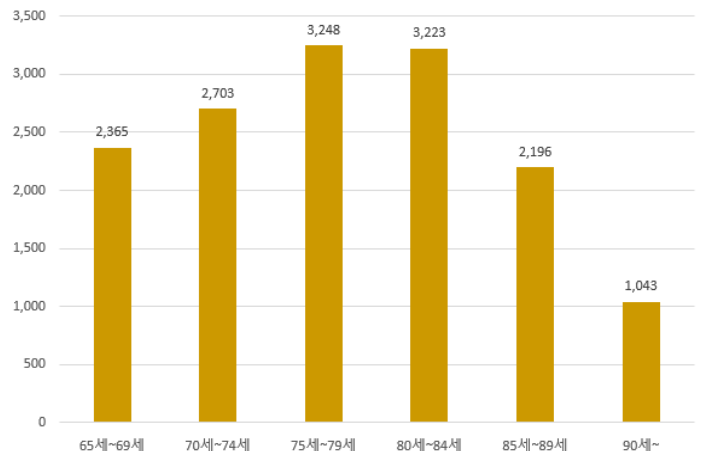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령별 낙상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나. 뇌진탕 사례가 가장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둔부 골절 증가

- 낙상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를 분석한 결과, ‘머리 및 뇌(뇌막)’를 다친 사례가 3,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시에 두 군데 이상 다치는 사례도 2,579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해부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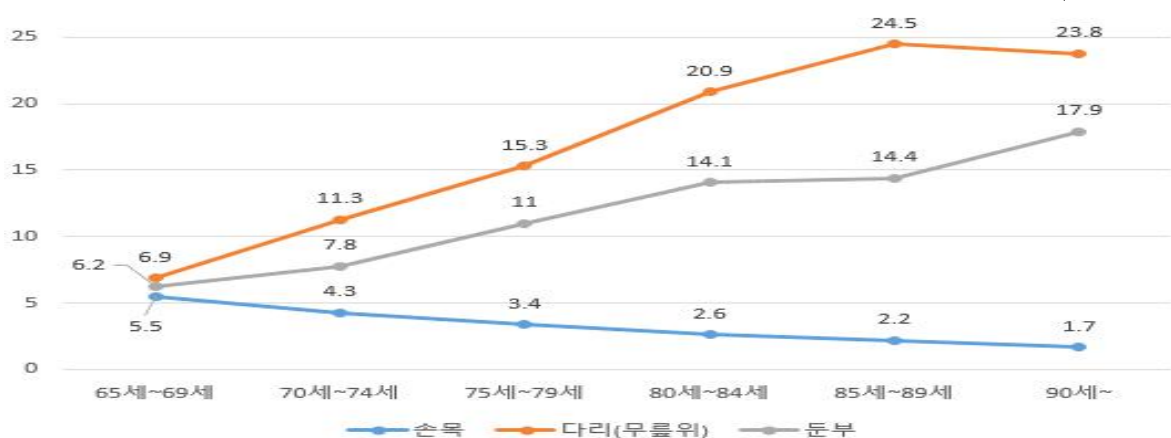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위해부위	머리 및 뇌(뇌막)	다리(무릎 위)	둔부	허리	흉부
	3,014 (20.4)	2,425 (16.4)	1,675 (11.3)	1,145 (7.8)	803 (5.4)

- 한편,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사고로 인한 손목 골절은 줄어들고 무릎 위 다리와 엉덩이뼈 등의 둔부의 골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신체의 반응 신경이 더더짐에 따라 낙상할 때 손바닥으로 땅을 짚기보다는 바로 엉덩방아를 찧기 때문으로 보인다.

[낙상사고에 따른 연령별 위해부위 현황]

(단위: %)



* 비율은 연령별 낙상사고에 대한 비율임

다. 낙상사고의 74%가 주택에서 발생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낙상사고의 74.0%(11,055건)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 주택 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고령자가 거동이 쉽도록 화장실과 침대 근처에 안전손잡이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설치해 예방할 수 있다.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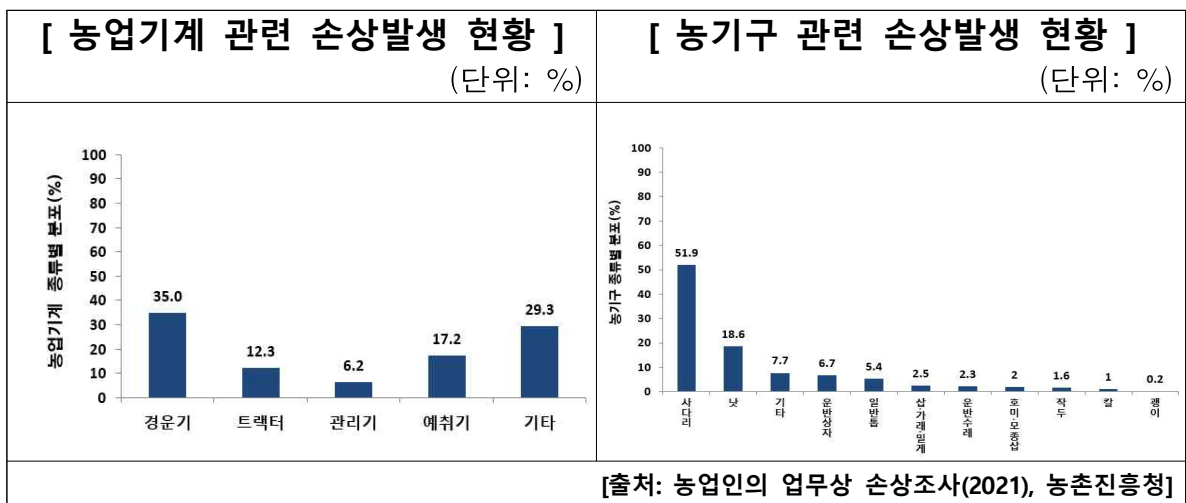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주택	2,920	2,737	2,879	2,519	11,055
도로 및 인도	153	179	278	237	847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164	175	112	136	587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31	159	108	76	474
의료서비스시설	103	78	88	77	346
교통시설	85	100	71	55	311
기타	272	327	185	374	1,158
합계	3,828	3,755	3,721	3,474	14,778

라. 야외활동 중 '남성'은 자전거, '여성'은 '승강기 시설'에서 낙상사고 다발

- 야외활동으로 인한 고령자 낙상사고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자전거' 관련 낙상사고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 '승강기 시설' 관련 낙상사고가 많았다.
- 남성은 자전거를 타다가 떨어지거나 넘어져 '눈 및 눈 주변'을 다치는 사례가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낙상으로 '허리' 부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농촌 지역에서는 '경운기', '사다리' 관련 낙상사고 다발

-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자 비율은 46.8%(2021.12.1.기준)에 육박하는 등 농촌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에서 고령자 낙상사고는 '경운기'와 '사다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 결과에서도 '경운기' 관련 사고가 전체 농업기계 관련 손상사고의 35.0%, '사다리' 관련 사고가 전체 농기구 관련 손상사고의 51.9%를 차지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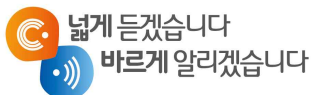
고령자 낙상사고 사례

위해품목	낙상사고 사례
바닥재	(여, 만88세)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대퇴부 골절을 입음.
침실가구	(남, 만71세)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낙상하여 뇌진탕 입음.
자전거	(남, 만76세)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얼굴에 찰과상을 입음.
승강기 시설	(여, 만71세) 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팔꿈치 타박상, 허리 염좌가 발생함.
경운기	(남, 만82세) 경운기 운전 중 커브를 돌다가 경운기가 전복되어 다리가 끼임.
사다리	(남, 만90세) 사다리를 타고 마당의 나무 절단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쇄골, 갈비뼈, 어깨뼈 골절상을 입음.

-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0명 이상의 고령자가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자원과 공정위, 농진청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 ▲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매트를 설치할 것
 - ▲ 침대와 변기 근처에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 ▲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 보호대를 꼭 착용하고, 바퀴나 체인에 끼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을 것
 - ▲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건너뛰지 말 것
 - ▲ 짐이 있는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것
 - ▲ 사다리는 경사가 심하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 설치하지 말 것
 - ▲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경운기 운전 시 방향 전환할 때는 조향클러치를 조작하지 말고 수동으로 핸들을 움직여 선회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자원과 공정위, 농진청은 고령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앞으로도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고령자 낙상사고 분석 결과
 2. 2021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 주요 결과
 3. 고령자 낙상사고 주요 사례 및 예방 방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붙임 1 고령자 낙상사고 분석 결과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도별) 고령자 안전사고는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됨.

[고령자 안전사고 접수현황]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	6,133	6,218	5,862	5,348

- 특히, 고령자 낙상사고는 매년 발생하는 고령자 안전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안전사고이며, 최근 4년(2018년~2021년)간 14,778건 발생함.

[연도별 고령자 낙상사고 접수현황]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미끄러짐·넘어짐	3,226	2,950	3,044	2,795	12,015
추락	602	805	677	679	2,763
낙상사고	3,828	3,755	3,721	3,474	14,778
낙상사고 비율*	62.4	60.4	63.4	65.0	62.7

* 낙상사고 비율: (고령자 낙상사고 / 고령자 안전사고) × 100

□ (성별) 고령자 낙상사고의 경우 여성의 사고가 남성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함.

[성별 접수현황 - 고령자 낙상사고]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남성	1,295	1,262	1,281	1,248	5,086
여성	2,533	2,493	2,440	2,226	9,692
합계	3,828	3,755	3,721	3,474	14,778

□ (연령별) 고령자 낙상사고를 5세 구간으로 분석한 결과, '75세~79세'의 낙상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80세~84세', '70세~74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70대'의 고령자 낙상사고 비율은 43.8%를 차지함.

[연령별 접수현황 - 고령자 낙상사고]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65세~69세	572	597	585	611	2,365(16.0)
70세~74세	725	687	657	634	2,703(18.3)
75세~79세	919	872	771	686	3,248(22.0)
80세~84세	816	799	830	778	3,223(21.8)
85세~89세	543	533	614	506	2,196(14.9)
90세~	253	267	264	259	1,043(7.0)
합계	3,828	3,755	3,721	3,474	14,778

□ (품목별) '바닥재'에서 낙상한 사례가 7,849건(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실가구', '자전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령층의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관련 낙상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함.

[품목별 접수현황(중분류) - 고령자 낙상사고]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바닥재	1,891	1,851	2,155	1,952
침실가구	379	489	366	345
자전거	101	171	272	325
계단 및 층계*	397	153	-	-
리프트 시설	82	122	107	120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품목 개편으로 '19. 6. 1.부로 '계단 및 층계' 관련 통계가 반영되지 않음

□ (발생장소별)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도로 및 인도',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낙상사고 중 74.0%(11,055건)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노인요양시설에서도 587건(4.0%) 발생함.

-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낙상사고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발생 장소별 접수현황(대분류) - 고령자 낙상사고]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택	아파트	1,533	1,360	14,55	1,255
	단독주택	643	627	648	486
	다세대주택	270	260	352	340
	상세불명의 주택	192	235	209	294
	연립주택	282	255	215	144
도로 및 인도	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	56	109	176	142
	자전거도로	25	51	70	57
	일반도로 및 그외	72	19	32	38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53	74	46	62
	요양병원	91	68	41	61
	그 외	20	33	25	13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31	159	108	76
의료서비스시설		103	78	88	77
교통시설		85	100	71	55
기타*		272	327	185	374
합계		3,828	3,755	3,721	3,474

* 쇼핑시설, 숙박 및 음식점, 레저시설, 확인되지 않는 장소 등

□ (위해부위별) 낙상사고에 따른 위해부위는 ‘머리 및 뇌(뇌막)’, ‘다리(무릎 위)’, ‘둔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머리 및 뇌(뇌막)’ 부상의 경우 뇌진탕 사례가 많음.

[주요 위해부위별 접수현황 - 고령자 낙상사고]

(단위: 건,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위해부위	머리 및 뇌(뇌막)	다리(무릎 위)	둔부	허리	흉부
	3,014 (20.4)	2,425 (16.4)	1,675 (11.3)	1,145 (7.8)	803 (5.4)

□ (연령대별 위해부위) 낙상사고에 따라 다치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손목’의 경우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다리(무릎 위)’와 ‘둔부’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낙상에 따라 손목을 지지하여 넘어지기 보다는 그러한 행동 없이 바로 넘어지기에 ‘다리(무릎 위)’를 주로 다치는 것으로 판단됨.

[연령별 위해부위 접수현황]

(단위: 건, %)

구분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80세 ~84세	85세 ~89세	90세 ~	합계
손목	131(5.5)	116(4.3)	112(3.4)	84(2.6)	49(2.2)	18(1.7)	510
다리(무릎 위)	164(6.9)	304(11.3)	498(15.3)	674(20.9)	537(24.5)	248(23.8)	2,425
둔부	147(6.2)	211(7.8)	359(11.0)	454(14.1)	317(14.4)	187(17.9)	1,675

* 괄호()안의 비율은 연령별 낙상사고에 대한 비율임

- (위해부위 현황) 낙상사고에 따라 2가지 부위 이상을 동시에 다치는 사례가 2,579건으로 확인됨.

[위해부위별 접수현황 - 고령자 낙상사고에 따라 다치는 부위]

(단위: 건, %)

구분	1부위	2~3부위	4~5부위	6부위 이상	합계
건수	12,181	2,378	190	29	14,778
(비율)	(82.4)	(17.6)			(100)

- (발생장소별 위해부위 및 품목) 고령자 낙상사고가 다발하는 주택 내 발생장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화장실/욕실', '침실/방', '거실' 등의 순으로 낙상사고가 발생함.

- 주로, '다리', '머리 및 뇌'를 다치는 사고가 다발함.

[발생장소별 위해부위·품목 접수현황]

(단위: 건)

발생장소	주요 위해부위					
	머리 및 뇌(뇌막)		다리(무릎 위)		둔부	
화장실 /욕실 (3,369)	814		545		415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문틀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문틀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문틀
	다리(무릎 위)		머리 및 뇌(뇌막)		둔부	
침실/방 (3,179)	750		608		482	
	비닐바닥재	침대	비닐바닥재	침대	비닐바닥재	침대
	다리(무릎 위)		머리 및 뇌(뇌막)		둔부	
거실 (2,190)	428		337		315	
	목재마루재	비닐바닥재	목재마루재	기타의자	목재마루재	기타의자

붙임 2 2021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 주요 결과 (농촌진흥청)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농업인의 농업활동 관련 질병 및 손상을 파악하여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국가승인통계 제1430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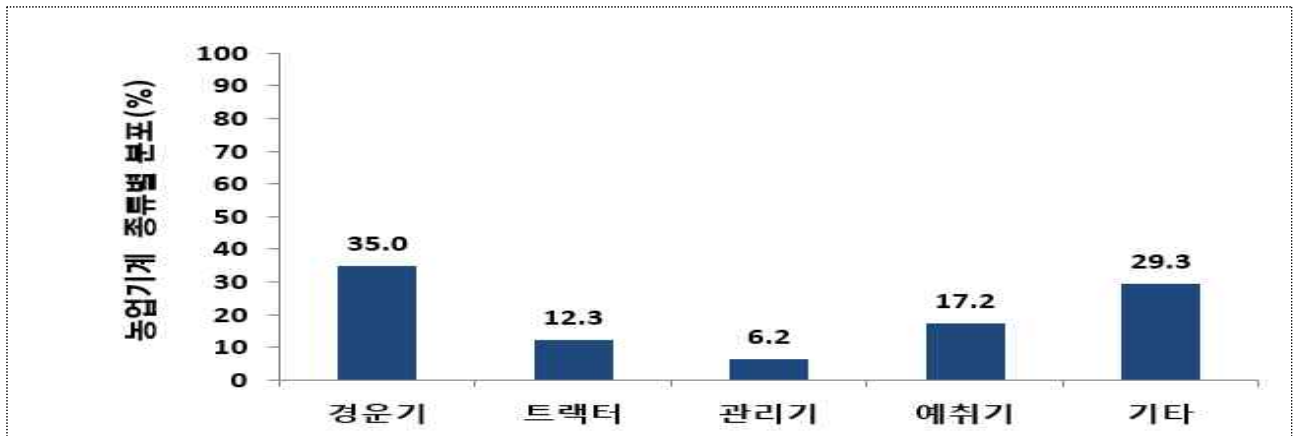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표본 설계	모집단	○ 전국의 읍면/동 지역의 모든 가구
	표본추출틀	○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전국 농가 정보 * 다단계화집락추출 (표본 읍/면 → 가구)
	표본규모	○ 전국 농어촌 지역 12,000가구(응답률 100%)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 표본가구의 농업인(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 : 2021년 6월 28일~7월 16일
산출방법		○ 서로 다른 가중값을 갖는 복합조사에서의 추정식을 적용하여 전국 추정

2. 주요 결과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 현황(휴업 1일 이상 손상 기준)

○ 농업기계 관련 손상사고의 농업기계 종류별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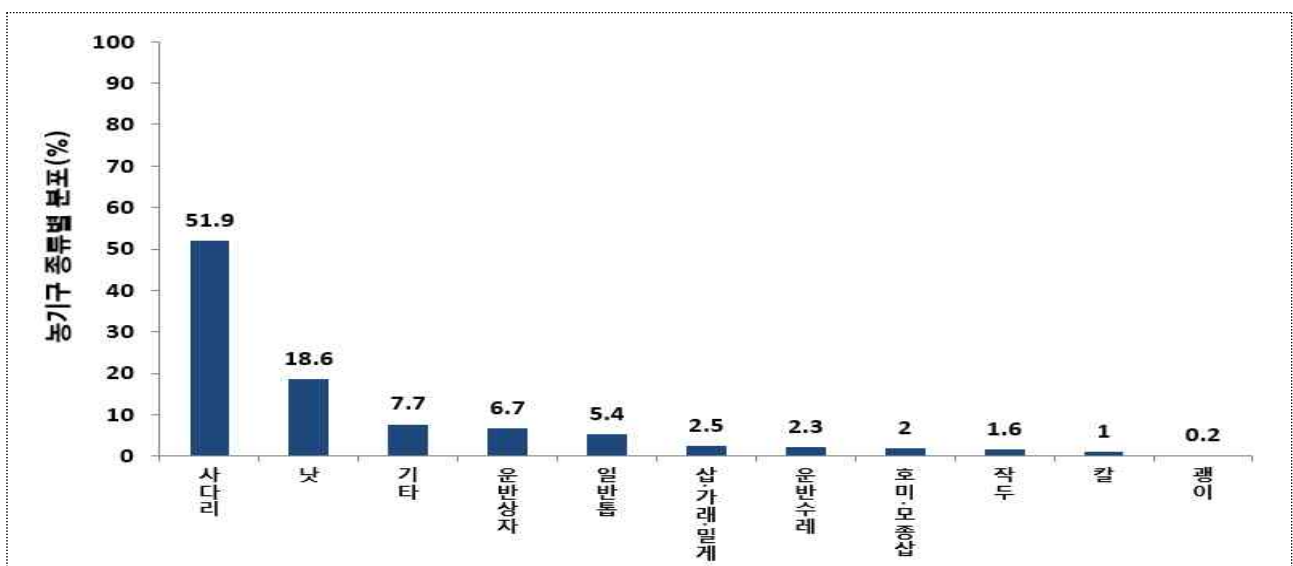


$$1) \text{ 농업기계 종류별 분포율} = \frac{\text{농업기계 종류별 손상건수}}{\text{농업기계 관련 손상건수}} \times 100$$

기타 : 이앙기, 코마인, SS살포기, 동력식 분무기, 비료 살포기, 동력운반차, 기계톱, 고소작업차, 트럭(화물차)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건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농작업 관련 손상 건수

○ 농기구 관련 손상사고의 농기구 종류별 분포²⁾



$$2) \text{ 농기구 종류별 분포율} = \frac{\text{농기구 종류별 손상건수}}{\text{농기구 관련 손상건수}} \times 100$$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건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농작업 관련 손상 건수

1. 주요 사례

바닥재	(여, 만88세)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대퇴부 골절을 입음.
	(남, 만90세) 방에서 앉아있다가 일어나던 중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 찢은 후 타박상을 입음.
침실가구	(남, 만88세) 침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며 손바닥 및 얼굴을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음.
	(남, 만71세)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낙상하여 뇌진탕 입음.
자전거	(남, 만76세)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얼굴에 찰과상을 입음.
	(여, 만75세)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후로 의식 저하와 이마에 부종이 발생함.
승강기 시설	(여, 만75세) 엘리베이터 문턱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과 팔을 부딪침.
	(여, 만71세) 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팔꿈치 타박상, 허리 염좌가 발생함.
경운기	(남, 만84세) 경운기 운전 중 떨어지며 경운기 바퀴에 우측 팔이 깔리며 골절됨.
	(남, 만82세) 경운기 운전 중 커브를 돌다가 경운기가 전복되어 다리가 끼임.
사다리	(남, 만90세) 사다리를 타고 마당의 나무 절단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쇄골, 갈비뼈, 어깨뼈 골절상을 입음.
	(여, 만65세) 사다리를 타고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함.

2. 고령자 낙상사고 예방방법

□ 주택 내 낙상사고 예방

-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사용하세요.
- 바퀴 달린 의자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세요.
- 침대와 변기 근처에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세요.
- 화장실 문과 싱크대 앞에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깔개 등을 두세요.
- 현관과 방에 있는 문지방, 문턱을 제거하세요.

□ 야외활동 시 낙상사고 예방

-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 보호대를 꼭 착용하세요.
-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으세요.
- 에스컬레이터는 안전선 안에 손잡이를 꼭 잡고 타고, 걸거나 뛰지 마세요.
- 짐이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 농촌지역 낙상사고 예방

- 사다리를 설치할 때는 경사가 심하거나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은 피하세요.
- 사다리 작업할 때는 사다리 고정장치와 발판의 미끄럼 방지 여부를 점검하세요.
- 사다리 작업할 때에는 사다리 맨 위로부터 3~4발판 아래에서 작업하고, 몸의 중심이 사다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경운기 운전 시 방향전환을 할 때는 조향클러치를 조작하지 말고 수동으로 핸들을 움직여 선회하세요.
- 경운기는 충분한 폭이 확보된 농로에서 운전하고, 경사지·커브길·비포장로 등에서는 저속 주행하세요.